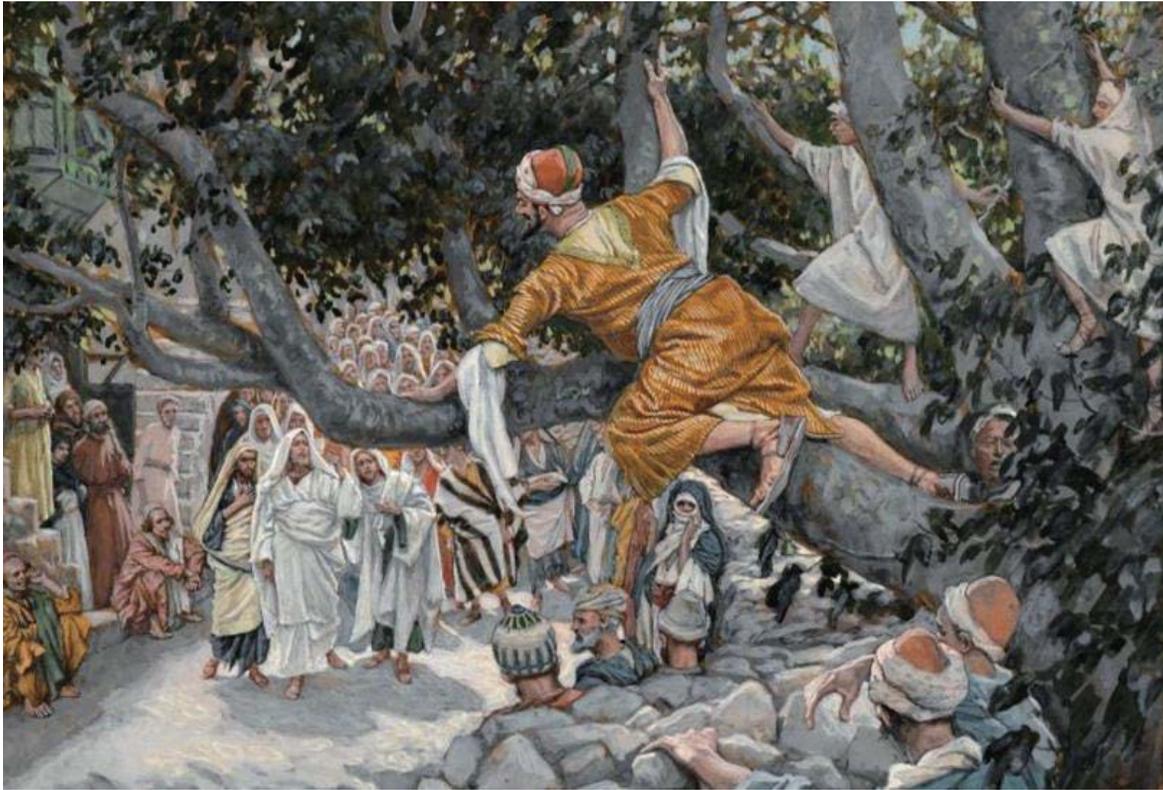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루카 19,5-6. 9)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자캐오〉,
 제임스 티스.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

[제1독서] 지혜 11,22—12,2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2 테살 1,11—2,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루카 19,1-1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 찬양하라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6] 찬미 노래 부르며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²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³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⁴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⁵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⁶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⁷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⁸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¹⁰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¹ He entered Jericho and was going through the town
² and suddenly a man whose name was Zacchaeus made his appearance; he was one of the senior tax collectors and a wealthy man.
³ He kept trying to see which Jesus was, but he was too short and could not see him for the crowd;
⁴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tree to catch a glimpse of Jesus who was to pass that way.
⁵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poke to him, ‘Zacchaeus, come down. Hurry, because I am to stay at your house today.’
⁶ And he hurried down and welcomed him joyfully.
⁷ They all complained when they saw what was happening. ‘He has gone to stay at a sinner’s house,’ they said.
⁸ But Zacchaeus stood his ground and said to the Lord, ‘Look, sir, I am going to give half my property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I will pay him back four times the amount.’
⁹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¹⁰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out and save what was lost.’

묵상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자캐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며 마침내 완성하고자 하시는 구원 업적의 예표와도 같이 묘사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지고 강조되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거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자캐오가 로마의 지배하에 세금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제국의 압제자 노릇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가 받은 멸시와 비난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서 외면당한 자캐오라고 해서 위대한 예언자, 메시아로 칭송받던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먹고살려고 지배 세력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무화과나무에 올라 자신을 쳐다보는 자캐오의 속마음을 읽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려오라”는 말 속에는 그의 욕심, 자책감, 상처를 버리라는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집에 머물기까지 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듯이, 그토록 소중한 재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자캐오의 마음에는 주님의 ‘불멸의 영’이 살아 있었고, 그 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캐오에게 ‘오늘’ 구원을 선포하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십니다. 자비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하느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결국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하느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호랑이도 하느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호랑이는 “하느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청원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교훈을 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과연 기도를 무엇인가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2558항)”라는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2559항)”라는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의 말을 인용해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간단히 설명할 때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크 필립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고 참된 사목 생활의 전제”라고 말하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구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 생명의 풍성함과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도로 실현되는 이러한 상호 관계와 사랑의 교환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속 빈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고, 복음 선포는 선전 활동일 뿐이며, 인간 구원을 위한 투신은 인간 조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자선사업일 뿐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모든 신자에게 꼭 필요하고,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특히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는 단계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기도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삶 전체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오늘날의 세계에서 피상적인 기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 ‘위험에 놓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신앙이 점차 잠식당하는 것을 보게 될 위험을 무릅쓸 것이고, 아마도 결국 ‘대체물’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당치도 않은 미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충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ego)를 교묘하면서도 확실하게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되고, 이런 삶 안에서 하느님과 시나브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 하루 종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평신도들이 날마다 20분간 기도하면서도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수도자들과 같은 은총을 받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Apprendre A Prier
Pour Apprendre A Aimer

자크 필립 지음 추교윤 옮김
바오로딸 출판

기도가 삶의 리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한 주간이나 일 년 중 특정한 때에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과 나누는 작은 대화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한 한 잠깐씩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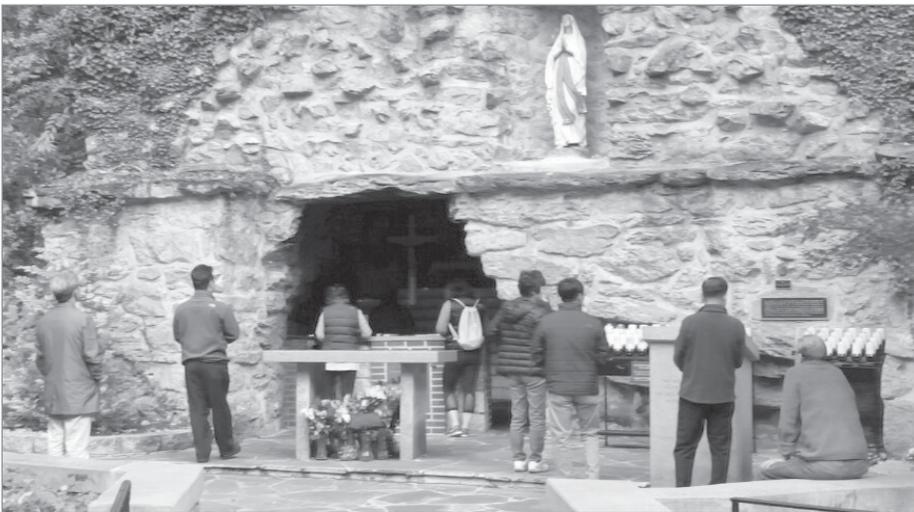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 참된 자유, 마음의 평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큰 선물을 위해 기도생활에 더 충실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색할 수도 있고, 또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에 맛 들이게 된다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마음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성 정하상 바오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회 성지순례



본당의 50대 형제들의 모임인 요한회(회장 윤봉근 도미니코)는 지난 23일(일) 메릴랜드 에미츠버그의 그로토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15 명의 참석 회원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십자가의 길과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했다.

그로토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에 선포한 ‘자비의 희년’ (2015년 12월 8일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대사 성지로 지정된 성당인 만큼 이날 미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들은 돌아오는 길에 성지 인근의 커닝햄 폴스 공원에 들러 준비해 간 음식을 다같이 나누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레지오 마리아 가두선교 실시



사랑하을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조경미 안젤라) 단원 세 명은 지난 19일 (수) ‘천주교를 알립니다’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어깨띠를 두르고 센터빌 롯데에서 가두선교를 실시했다. 이를 본 본당의 한 교우는 1시간 가량 안내 책자를 열심히 돌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선교의 중요성을 전했다.

10월 꾸리아 월례회의



은총의 모후



하느님의 어머니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정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 (단장 이경구 그레고리오)의 10월 월례회의가 10월 23일 (일) 각각 37명, 35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월례회의는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영적지도 신부님 강복, 사업보고, 상급평의회 소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CCD-CYO News **What Happened in our CYO?**

LOCK IN This past weekend CYO held its annual lock-in at church. Students came out and enjoyed many games and activities planned by teachers and officers. It was great to see students getting to know and meet new friends and bond with them.



1. Looking for basketball coaches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2. Fall Open Class

- When : Oct 30th (10:00am - 11am)

3. 1st Communion class registration at the Hasang building from 10am to 1pm

- The class will start on Nov 16 (Wed) at 7:45pm

4. School Pictur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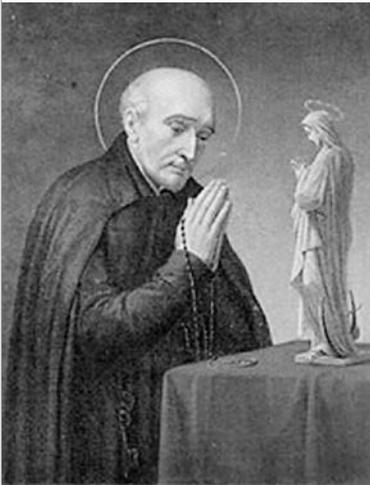
- When: Nov 6 at 10 am

5. Confirmation Class Schedule

- 11/2, Wed. Interview with Fr. Seong at 7:15pm
- 11/5, Sat. Confession at 2:30pm
- 11/6, Sun. Rehearsal with Sponsors at 1pm
- 11/8, Tues. Confirmation Mass at 7:30pm

Saint Story

St. Alphonsus Rodriguez Feast date : Oct 30



This Spanish saint was born in 1532. When he was fifteen, he was sent to study at the Jesuit College in Alcala. When his father died, Alphonsus had to leave school in order to help his mother run the family wool business. Three years later, he got married. He and his wife, Mary, were blessed with two children, a boy and a girl. But a time of suffering now came to Alphonsus. His business began to fail, his wife and mother became very sick,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his wife, children, and mother passed away. Alphonsus began to think about what God might have in mind for him. He had always been a devout Christian. But from then on, he prayed, did penance, and received the sacraments more than ever before.

Alphonsus asked to be admitted into the Society of Jesus. However, he was told that he must study first. So he went back to school. Little boys made fun of him. He had to beg for his food, because he had given all his money to the poor. At last, he was accepted as a lay brother and was made doorkeeper at the Jesuit College in Majorca. "That brother is not a man—he is an angel!" his superior said of him years later. Priests who knew him for forty years never heard him say or do anything wrong. His kindness and obedience were known to all. Once, all the chairs in the house, even the chairs from the bedrooms, had been used for a Forty Hours devotion. By mistake, Brother *Alphonsus'* chair was not returned until the following year. Yet he never mentioned the fact to anyone. He was happy to do without a chair. Many people came to *Alphonsus* for spiritual advice. He inspired a young Jesuit named Peter Claver to offer his life in the missions of Latin America. (We celebrate the feast of St. Peter Claver on September 9.) During his long life, *St. Alphonsus*

had to conquer very strong temptations. Besides that, he had physical pains. Even as he lay dying, he spent a half hour in terrible agony. Then, just before he died, he was filled with peace and joy. He kissed his crucifix and looked lovingly at his fellow religious. He died in 1617 with the name of Jesus on his lips.

St. Alphonsus Rodriguez taught many lessons with his life. One very important lesson is the way he accepted all the events in his life from the loving hands of God. He never lost hope. We can ask *St. Alphonsus Rodriguez* to teach us how to trust.

PRAYER

FOR

NEW LIFE THROUGH DEATH TO SIN

Though Your most holy passion and death, I beg of you, Lord, to grant to me a most holy life, and a most complete death to all my vices and passions and self-love, and to grant me sight of your holy faith, hope and charity.

O God, in the faithful service of our brother Alphonsus You have shown us the way to joy and peace. Make us ready and watchful companions of Jesus, who became the servant of all, and now lives and reigns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Amen.



JOURNEY HOME

Recharge Your Faith

신앙의 재충전



지난 21일 금요일 저녁, 불켜진 하상 체육관에 삼삼오오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있을 Journey Home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버지니아 인근 지역의 가톨릭 신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다.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이 행사는 가톨릭 신자 대학생들을 초대하여 대학생활 동안 주님과 함께 하고 신앙심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1박 2일 피정이다. UVA, Virginia Tech, VCU, UMD, GMU 등의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은 로고스와 라파엘 청년들과 함께 몇 개의 조로 나뉘어 성경 구절을 읽고 나눔과 묵상, 협동심을 키우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성원경 보좌 신부의 강론과 미사, 소사예사의 찬양으로 피정의 의미를 더했다.

로고스와 라파엘이 함께 준비한 올해의 Journey Home은 “Recharge Your Faith : 신앙의 재충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50명이 함께 하며 자신의 신앙심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피정을 통해 신앙과 믿음을 가득 충전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봉사하는 삶

KOC 주최 주임 신부님 토막 특강

KOC가 주최하는 토막 특강이 지난 23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봉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사는, 봉사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봉사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지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30분의 짧은 특강임에도 주임 신부의 부임 후 첫 특강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했다.



1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11월 1일(화)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성인의 날 의무 대축일 미사 : 오후 7:30

2 제74차 새영세자 환영식

- 일시 : 10월 30일(일) 오전 11:30(B-1,2)

3 건강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10월 30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겨울철 관절 건강 관리와 낙상 예방 및 운동법
- 강사 : 김우기(안드레아) D.P.T(물리치료사)
- 문의 : 윤재원 (215) 510-7513

4 병자영성체

- 일시 : 11월 4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 264-0050

5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 5일(토) 오전 11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9900 Braddock Rd, Fairfax)
-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구역임원교육

- 일시 : 11월 6일(일) 오전 11:30(B-1,2)

7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1월 6일(일) 오후 1시(A-3)

8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11월 6일(일) 오후 1시(B-3,4)

9 복사단 모임

- 일시 : 11월 13일(일) 오후 1시(B-1,2)

10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 미사 오르간 반주 봉사자를 구합니다.
- 문의: 박상태 요한 (703)302-0026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30일(일)	연중 제31주일	제74차 새영세자 환영식 (11:30, B-1,2), 건강세미나 (11:30, A-1,2), 동중부 성령기도회 모임 (15:00, B-1,2)
31일(월)	연중 제31주간 월요일	아침미사(6:00, 성당)
11월 1일(화)	모든 성인 대축일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19:30,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 (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 (20:00), 성령기도회 (20:00, 도서관)
2일(수)	위령의 날	레지오 마리아에 (9:30, 친교실)
3일(목)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 (6:00, 성당)
4일(금)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하상성인학교 (9:30, 하상관), 병자 영성체, 회장단 회의 (20:00)
5일(토)	연중 제31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9:30, 친교실), 합동위령미사(11:00, Fairfax Memorial Park), 파티마 사도직 셀모임(18:00, B-4), 파티마 첫 토요일신심(18:15)
11월 6일(일)	연중 제32주일	구역임원교육 (11:30, B-1,2), 성모임원회의 (13:00, A-3), 알링턴교구신학생 답소(12:40, B-1,2) 청소년사도회(13:00)

11 푸르실리스마 영성피정

-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1:30 워싱턴 성당
- 권오영 신부님을 모시고 푸르실리스마 영성 피정을 실시하니 모두 참석하시어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곽노덕 (703) 608-9664

12 2016년 미 동중부 2차 성장 세미나 (성령기도회)

- 일시 : 11월 25일(금) - 11월 27일(일)
- 마감 : 11월 6일(일)
- 주제 : "자비와 회복의 여정"
- 장소 : Holy Trinity Retreat Center (8400 Park Heights Ave, Baltimore, MD)
- 문의 : 조혜원 (402) 639-6262

13 파티마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및 갱신

- 봉헌 기간 : 11월 5일(토) - 12월 7일(수)
- 참가자 등록 : 10월 30일(일) 8시, 10시 미사후 친교실
- 문의 : 김만식 (703)403-1185

14 K of C 입단식

- 일시 : 11월 1일(화) 저녁 8시, 하상관
- 신자분(18세 이상 남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문의 : 김 버나드 (703) 342-2194

15 2016년 학생 건진성사 일정

- 신부님 인터뷰 : 11월 2일(수) 오후 7:15
- 고백성사 : 11월 5일(토) 오후 2:30
- 예행 연습 : 11월 6일(일) 오후 1시(대부모와 함께)
- 건진미사 : 11월 8일(화) 오후 7:30

16 첫 영성체 성사반 등록 안내

- 등록 : 주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30분, 하상관 로비
- 수업 : 첫 수업 11월 16일, 매주 수요일 오후 7:45 (하상관 # 106)

17 청국장 가루 주문

- 성모회에서 청국장 가루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 문의 : 장 에디타 (703) 973-7159

18 11월 6일(일), Daylight Savings Time 종료

- 다음 주일인 11월 6일(일)부터 오전 2시가 1시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자를 위한 2차헌금

허리케인 매슈 홍수 피해자를 돕기 위한 2차 헌금(10월 29일, 30일)을 실시하니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1월 3일(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톤즈에서 온 편지** : 200일간의 아프리카 남수단 봉사 이야기 12회
- **다큐멘터리 그리스도인의 씨앗**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순교자특집 1부
- **명불허전** : 예수님 안에서 가족사랑. 서울시립 아동상담 심리치료센터 김보애 안나수녀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일반 지향 언론인 언론인들이 강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전교주일 전교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0월 23일 (전교주일)

주일헌금	\$ 7,919.37
교무금	\$ 9,690.00
교무금(신용카드)	\$ 2,250.00
특별헌금	\$ 300.00
2차 헌금	\$ 2,287.60
합계	\$ 22,446.97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임홍빈(마카엘)
- ♥ **군복무자**
-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자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백범(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슬(루시아), 고미엘(마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서양화 아크릴, 수채화, 유화 김이레나(교사자격증) 703-927-9229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저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5분 도정 증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ola Salon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시티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